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Ⅲ

The Bible has the secret that the human body does not die

How hard living are you to come to this foreign country from 11,000 kilometers away? Today, continuing from last week, this man would like to continue the sermon under the title, The Bible tells the human body's secret not to die. 안녕하십니까? 이역 만리 타국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The one who knows how to match the whole Bibl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Bible
성경말씀의 전체를 짝을 맞출 줄 아는 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

There are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Bible today. However, no one can interpret the Bible right unless one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Isaiah 34:16 says, "Look in the scroll of the LORD and read: N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t one will lack her mate. For it is his mouth that has given the order, and his Spirit will gather them together."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find and match its mates in this Bible except those who receive the Holy Spirit. 오늘날 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짝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 짝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Therefore, to determine whether someone is the protagonist of the Bible or not, the one who knows how to match the whole Bibl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Bible. However, many Christian branches interpret the Bible

from their viewpoint; and analyze the Bible in their way, saying that they are orthodox.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인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지 하는 것은 성경말씀의 전체를 짝을 맞출 줄 아는 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정통이니 뭐 직통이니 하면서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However, if we examine these words of the Bible a little more deeply, there is no doubt that they are the words of God. Also, since these words of the Bible are the words of God, they are about God, not sinners. 그러나 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으며 또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은 죄인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About the theme, "The Bible tells the secret of the human body not to die," What kind of existence man himself was initially, that man himself was God, is recorded in the Bible. That means that Adam and Eve were in the image of God.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does not mean that they are like God, but that they are identical to God.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말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었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a unified world, and the kingdom of God is the kingdom of truth, there is



1987년 10월 11일 뉴욕 한국교포방송사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총 4회 중 3회차 방영된 조희성 총재님의 설교 장면

truth in one, and therefore truth itself is God. There is faith in one, and in one, there is eternal life that never dies.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일원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진리의 세계인 고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신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The Bible talks about eternal life from verse to verse. If you look at John 11:25,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Also, in John 6:49, It is written that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died, but whoever eats my flesh and blood will never die.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e human body does not die. 그러므로 성경은 구절구절이 영생을 논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있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 6장 49절에 가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것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Also, as this man said last week, it is written that man will die for his sins and go to hell because of his sins. When a person dies, he dies because of his sins, and he dies because he cannot solve his sins. There is such an opposite meaning that we cannot die if our sins are resolved, but people who have not received the Holy Spirit read this Bible, so they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Therefore, this Bible is God's word and expresses God's will. God's purpose is recorded, and God's will is recorded.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죄 값으로 죽은고로 죄 때문에 죽은 고로 죄를 해결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바로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반대의미가 그 말씀 속에 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고로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피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It is not just the saying that Adam and Eve took on the image of God. God says to everyone "Walk in God." It has the opposite meaning that the current spirit of self-consciousness of the 'I' is not the spirit of God. 원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주체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반대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clearly states, "What is the spirit of the self-consciousness of 'I'?" Therefor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As this man said before, in James 1:15, "lust has conceived, an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Greed itself is sin, sin itself is death, and a man dies because of sin. Therefore, it is said that a man dies because of lust. Therefore, greed itself is not greedy. Becaus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greedy,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a sin, which means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무슨 영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는 똑똑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욕심 자체가 죄요 죄 자체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 고로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

의식이 바로 죄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But people who say "My soul will be saved" are those who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Becaus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the Bible asks people to b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To b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means to be born again of the Spirit of God. To be born again of the Spirit of God means that you need to be restored to God, you need to become God to receive eternal life, and when you become God, God will live forever and ever.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그러므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and the self-consciousness of 'I' cannot enter the paradise of God. Today, most people believe and say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which is soul, will enter paradise; but it is an unbiblical statement and an unbiblical idea. From now on, we need to correct that thinking. 그러므로 오늘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어서 영원히 천당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얕이요 바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6면에 계속

시내산에서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은 돌판에 새겨진 문자를 사용한 고조선 시대의 오염화(근화문) 와당

고조선 건국 당시 <오염화 와당>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가나안 소라 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할 때,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영생 상징)

꽃씨를 한반도에 가져와서 널리 전파하고자 독려하는 내용이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로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현대 히브리어로 해독한 것이다.*



유물명칭: 오염화 와당(수막새),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평천리 추정), 사진출처: 『朝鮮瓦塲圖譜』, 2권, 도194 동범(同範)와당 소장처: 국립광주박물관(유물번호_8464/구215), 경희대중앙박물관(유물번호_301429-000), 일본 데즈카야마 대학 무속 박물관 소장

